자동차·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구축 … 157개 기업 2조4000억 투자 성과

광주시는 올해 주요 성과로 자동차와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구축,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방안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전남도는 주력·미래산업 육성 기틀, 농·수·축산업과 관광업 성장, 국비확보 등이 눈에 띄었다.

광주시

올해 광주시는 자동차와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는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시정의 최고 역점 사업이기도 했다.

특히 미래 광주의 산업지형을 재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책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3000억원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큰 관문을 넘었다. 광주시는 새해부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으로 궤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조이롱 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 그룹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 밸리 조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구 대촌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첫 삽을 뜨는 등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핵심 시정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이른바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결국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게 윤 시장의 지론이다.

윤 시장은 "올해는 국내산업의 급속한 재편 속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도 중요했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형 공동브랜드 제품 출시, 지역건설업체의 이들 제품 우선 구매협약 체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노사가 주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금호타이어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탄력이 붙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 광주' 실현 등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광주 만들기'도 성과로 나타났다.

문화전당 주변의 프린지페스티벌과 대인야시장, 청년 상인들의 1913 송정역 시장,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호수생태원 일원의 풍류남도 나들이, 중외공원의 아트피크닉 등은 올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다.

3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률 최저, 119 구급서비스 품질평가 전국 1위 등은 안전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시정과도 맞아떨어졌다.

모든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에서 소수와 약자를 위한 행정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행정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윤 시장의 철학이 배어있다는 평가다.

전남과 대구 등 지역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연대에 힘쓴 일이나 '혈세먹는 하마'로 불린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절감, 롯데마트 불법전대 원상회복 조치와 130억원 사회환원 등도 시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 부지선정 착수 등은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과 두 발로 뛴 행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

송정역 시장 등 문화상품 자리매김

제2순환도로 재정 절감 방안 마련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부지선정 성과

전남도

올해 가장 큰 성과로 157개 기업의 2조3955억원 투자와 5122개 일자리 창출, 17년 만의 제조업 종사자 10만명 돌파 등을 꼽았다. 이에 전남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종합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수, 조선 산업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확보, 한전·광주시와 조성 중인 나주 혁신도시 주변 에너지 밸리에 2년간 177개 기업 유치 등은 주력·미래산업 육성의 기틀로 평가했다.

농·축·수산업에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4년 만의 증가, 10월 말 현재 양식어업 생산액 1조496억원과 수산물 연간 생산액 2조원 시대 달성, 최첨단 축산물 도축·공판장 신축 추진 등 실적을 냈다.

이 지사는 "2015년 전남에 3969만명이 방문해 관광객 전국 2위의 위상을 되찾았고 올여름 휴가지 만족도, 관광지 호감도 등 조사에서 2위에 오르는 결과도 있었다"며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1000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진도와 신안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건립되고 있다"고 관광 분야 성과를 과시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위해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된 2010~2012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 도의 국고예산이 6조원을 돌파했으며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여수와 신안의 연륙·연도교 건설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늘었던 전남 인구의 재감소, 전남도 청렴도 전국 최하위, 안전도 평가 하위권, 전국 체육대회 등위 하락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새해에는 지역발전 토대가 될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권역별 관광자원을 특화해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유통을 발전시켜 농어업 소득도 높일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와 깨끗한 공직사회,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름이 있다면 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선 경선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도정을 맡은 지 2년 반 만에 곁눈질을 하는 것도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좋은 정부가 출범하도록 법적,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7년만에 재조업 종사자 10만 돌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사업 착수

나주 에너지밸리에 177개 기업 유치

광주~완도 고속도·신안 연륙교 속도

올해 광주서 하루 2.6건 화재 발생 … 6명 사망·24명 부상

올해 광주에서 하루에 2.6건꼴로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 모두 943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등 3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37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화재는 오후 1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37%(349건)가 발생, 가장 많았다. 사망자 6명 중 4명이 새벽 2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서 숨졌다.

화재발생 원인으로 부주의 56.6%(534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23.9%(225건) ▲기계적 요인 8%(76건) ▲원인 미상 5.5%(52건) 순이었다.

부주의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33.5%(179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25.3%(135건) ▲쓰레기 소각 11%(59건) ▲불씨 방치 9.6%(51건) 등이다.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 29.5%(278건) ▲아파트 13.3%(125건) ▲단독주택 12.8%(121건) ▲다세대 5%(14건) ▲연립주택 2.9%(8건)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시유지 2만3583㎡ 정보 사전 공개

공유재산 활용률 향상

광주시는 공유재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유지 중 대부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다.

소재지·지목·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위치도·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로 한 차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불법 점유자에게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한다.

또 추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미대부 일반재산 중 필지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한다.

대상 토지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한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로 매각, 시의 세외수입으로 활용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지문으로 본인 확인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외에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